



ETS INSIGHT

ETS INSIGHT

Emissions Trading Scheme & Carbon Market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구독
신청



전 호
보러가기



정보지 인용
인증



구독자
퀴즈



모바일 채널
바로가기

CONTENTS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01



알림
/소식

02



K-ETS
in Focus

03



Global ETS
in Focus

04



국내
기후변화 동향

05



해외
기후변화 동향

06



구독자
참여 페이지

07



배출권 거래제
바로알기



2022년 배출권거래제 주요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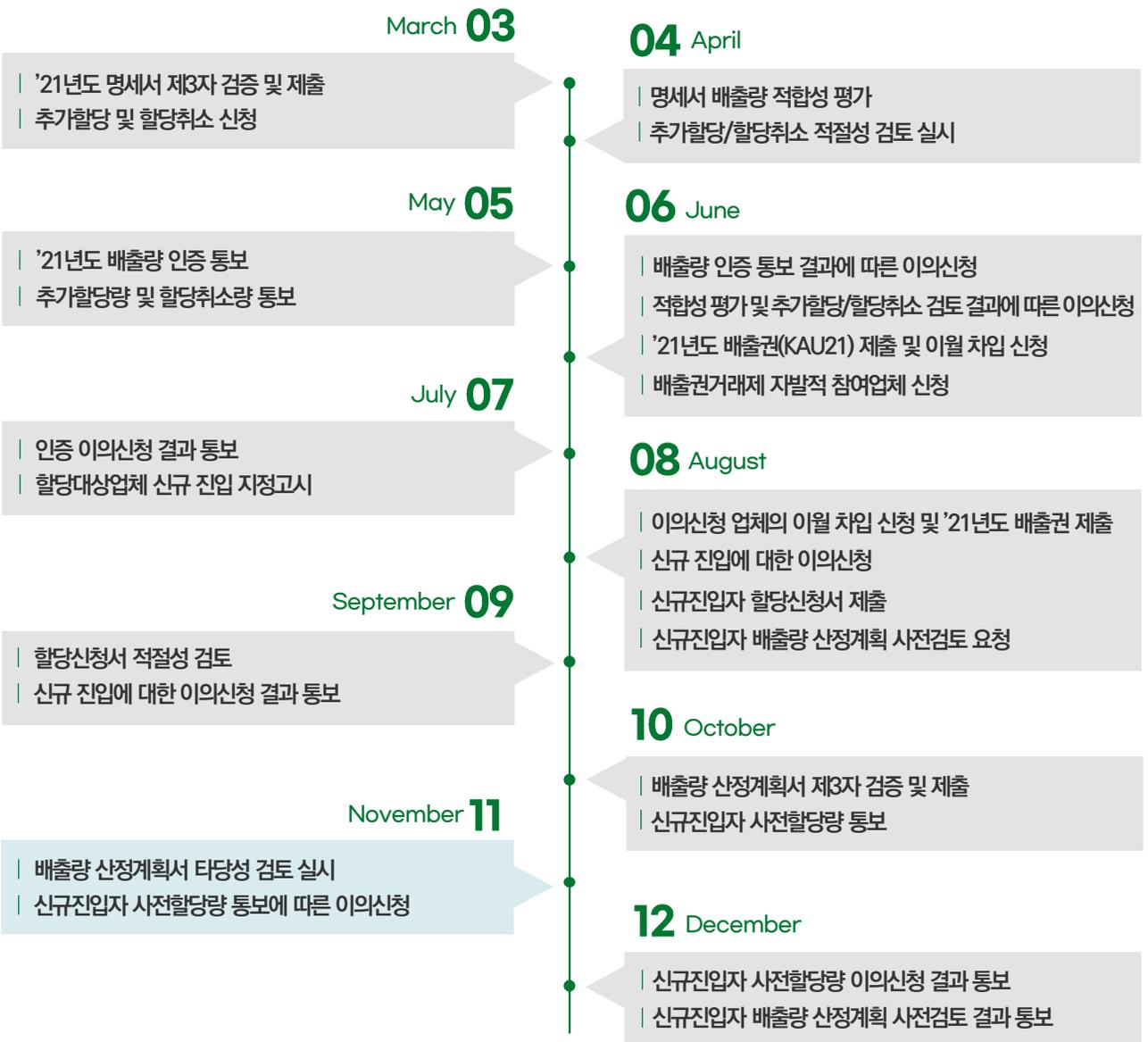
November **11** — **12** December

알림 / 소식

2022년 11/12월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공고

- 입찰일시** 11월 9일(수) 13:00~14:00 **입찰수량** (11월) 2,300,000톤 (입찰 배출권 종류 : KAU22)
12월 14일(수) 13:00~14:00 (12월) 2,300,000톤 (입찰 배출권 종류 : KAU22)
- 낙찰한도** 업체별 낙찰수량은 해당 입찰예정일의 입찰수량 (해당일 입찰수량)의 15%로 제한 - 15% 초과시 호가 거부
- 참고 링크** KRX 배출권시장 정보 플랫폼 [▶ 바로가기](#)

※ 제도 운영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NGMS, ETRS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행사/일정

November **11** ————— **12**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6	7 녹색소비주간 (11/1~11/30)(환경부)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11/7~11/20)	8	9 11월 배출권 유상할당	10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술 확보 방안 세미나 (세미나허브)	11 컵줍깅 행사 (녹색연합)	12
13	14	15	16 2022 그린 에너지&모빌리티 전문가 포럼 참가 신청 (고려대학교)	17 수전해 수소생산과 설비시스템안전 솔루션 최신분석 및 미래전망 세미나 2023 (산업교육연구소)	18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 (~11/18)(한국환경공단)	19
20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내부심사원 양성교육 (11/21~11/23)(한국품질재단 경영품질교육원) 수소·암모니아 전주기 현황과 전망 세미나 (11/21~11/23)(세미나허브) 온실가스 Scope 1,2,3 산정 실무 교육 (한국품질재단 경영품질교육원) '21년도 신규진입자를 위한 배출권 정산 교육 (한국환경공단)	21	22	23	24 컵줍깅 행사 (녹색연합)	25	26
27	28	29	30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제3차 모집 (11/16~11/30) (한국환경공단)	12/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실무교육 (12/1~12/2)(한국품질재단 경영품질교육원)	12/2	12/3
12/4	12/5	12/6	12/7	12/8 LCA 전과정평가 실무과정 교육 (12/8~12/9)(한국품질재단 경영품질교육원)	12/9	12/10
12/11	12/12	12/13	12/14 12월 배출권 유상할당	12/15	12/16	12/17

알림 / 소식



목차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2022.10.01. ~ 10.31.

지표배출권 KAU22 분석 증가 기준 : (당월) 10월 31일 / (전월)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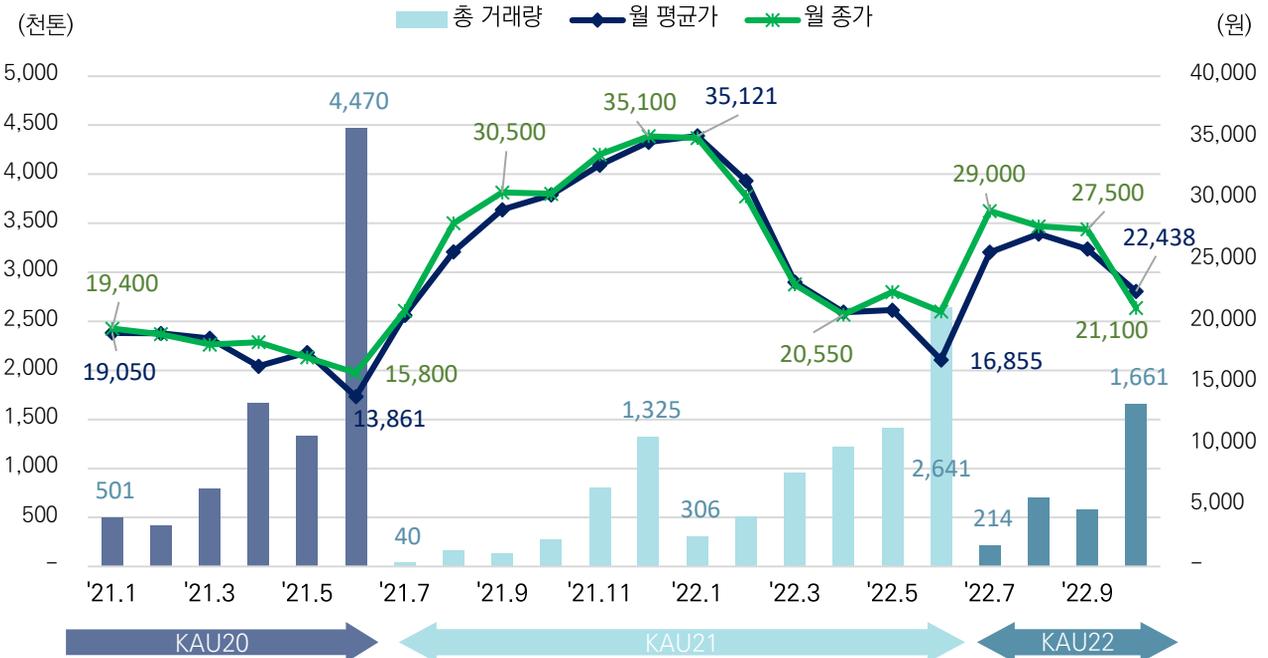
구분	10월						누적 ('21.1.1~'22.10.31)		
	종가	최고가	최저가	전월비	등락률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가격 (원)	21,100	25,700 ('22.10.4)	20,950 ('22.10.21)	▼ 6,400	▼ 23.27%	22,438	32,700 ('21.11.12)	10,800 ('21.6.22)	25,924

구분	거래량(톤)			거래대금(천원)		
	10월	전월비	누적	10월	전월비	누적
장내거래	219,481	▼ 366,726	1,725,272	4,924,675	▼ 10,254,550	44,725,457
유상할당(경매)	1,341,200	▼ 672,800	7,880,200	29,841,700	▼ 24,334,900	199,960,800
장외거래	100,000	-	3,229,913	-	-	-
합계	1,660,681	▼ 1,039,526	12,835,385	34,766,375	▼ 34,589,450	244,686,257

*누적 기간은 '21.1.1.부터 '22.10.31.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장외거래대금은 공개하지 않음.

지표배출권 장내거래 현황

DATA





K-ETS in Focus

2022.10.01. ~ 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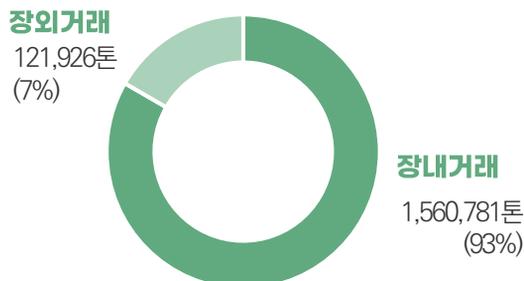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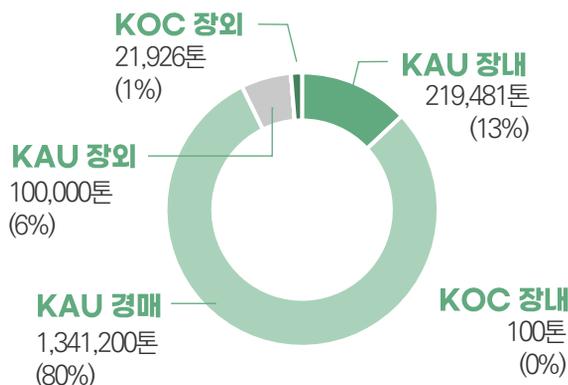
국내 배출권 거래 현황

종가 기준 : (당월) 10월 31일 / (전월) 9월 30일

구분	거래량(톤)	비율(%)	세부구분	거래량(톤)	비율(%)
KAU	1,660,681	99%	장내	219,481	13%
			경매	1,341,200	80%
			장외	100,000	6%
KOC	22,026	1%	장내	100	0%
			장외	21,926	1%
합계	1,682,707	100%	합계	1,682,707	100%

국내
통계

국내 배출권 장내·외 거래현황



구분	KOC20-22
당월종가/전월비	23,000원 / -
거래량/전월비 (장내·외 거래량)	22,026톤 / ▲ 21,926톤 * (장내) 100톤 (장외) 21,926톤
월간 거래대금 (장내 거래액)	2,300,000원
월간 최고가/최저가	23,000원 / 23,000원



배출권 일일 거래량 및 가격 확인 방법

ETS Insight 51호 바로가기

※ KAU23~25, KOC21~23, KOC22~24, KCU22, i-KOC21~23, i-KOC22~24 금월 거래내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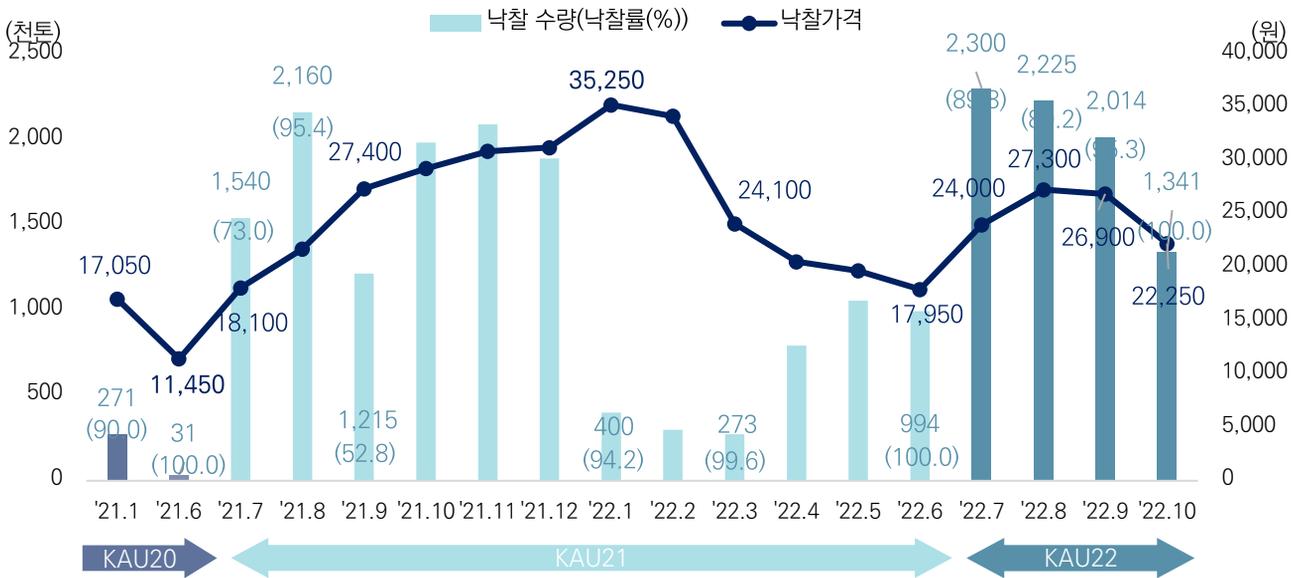
목차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배출권 경매

경매일자	종목	입찰수량 (톤)	응찰수량 (톤)	응찰업체 수 (개)	최고응찰가 (원)	최저응찰가 (원)	낙찰가격 (원)	낙찰수량 (톤)	총낙찰액 (백만원)
'22년 11월 9일	KAU22	2,300,000	567,600	7	30,000	19,500	19,350	567,600	10,983

국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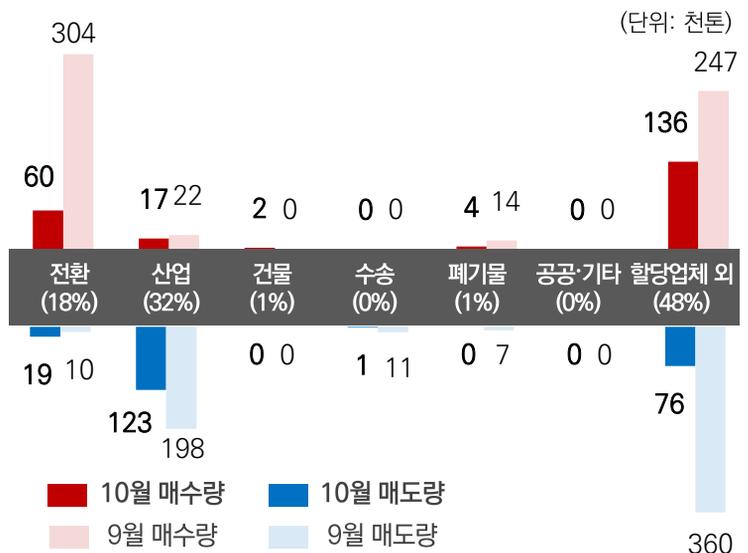


※낙찰률: 낙찰수량/응찰수량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일시 중단

KAU22~KAU25 부문별 장내거래 현황

2022.10.01. ~ 10.31.

부문명	매수량(톤)	매도량(톤)
전환	60,135	19,360
산업	16,800	122,871
건물	2,300	-
수송	-	1,110
폐기물	3,950	-
공공·기타	-	-
할당업체 외*	136,296	76,140
합계	219,481	219,481



*시장조성자 및 증권사



목차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2022.10.01. ~ 10.31.

KAU22 업종별 장내거래현황

DATA



KAU22 업종별 매수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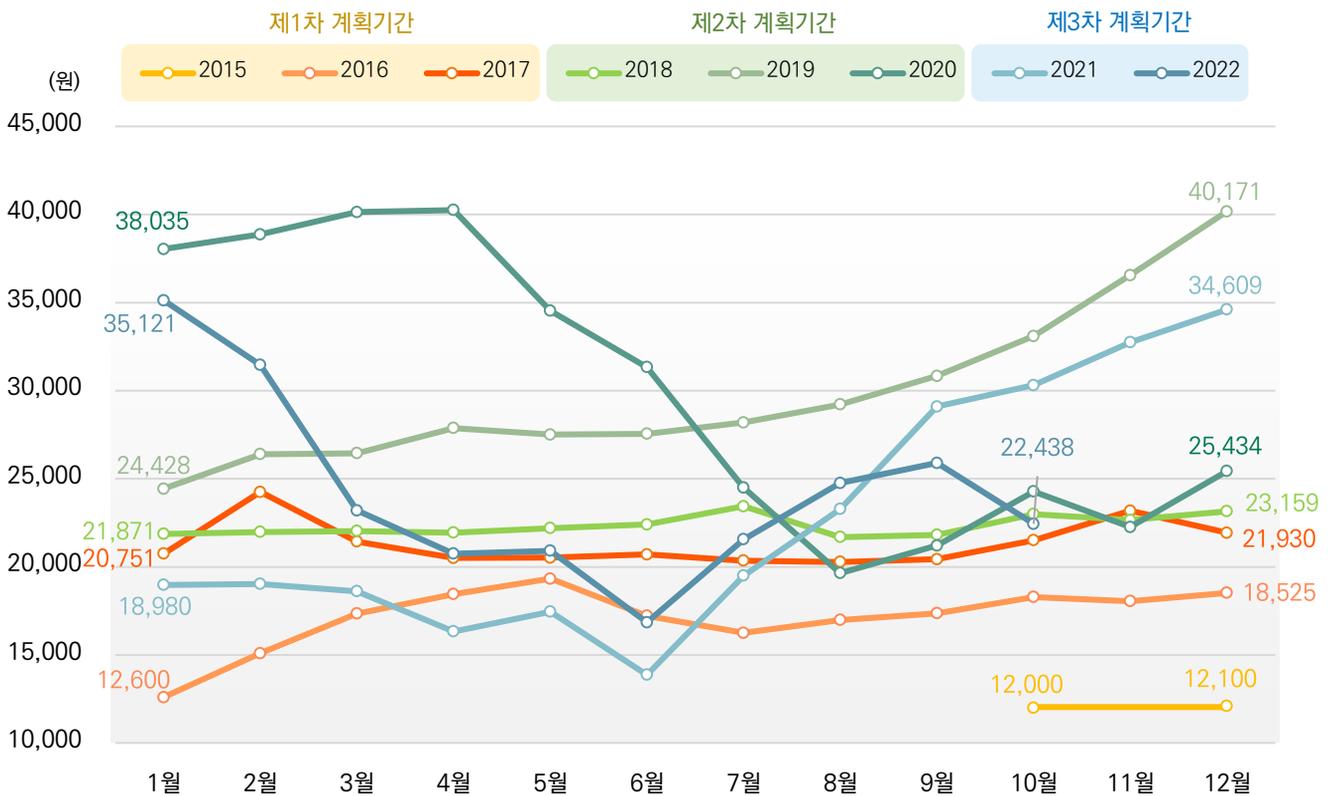
순위	업종	매도량(톤)	순위	업종	매수량(톤)
	합계	143,341		합계	83,185
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89,961	1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6,135
2	1차 철강 제조업	21,910	2	반도체 제조업	10,000
3	전기업	19,360	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5,800
4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9,000	4	전기업	4,000
5	해상 운송업	1,110	5	폐기물 처리업	3,950
6	방직 및 가공사 제조	1,000	6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2,300
6	석유 정제품 제조업	1,000	7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1,000



K-ETS in Focus

2022.10.01. ~ 10.31.

국내 배출권(KAU) 장내 평균가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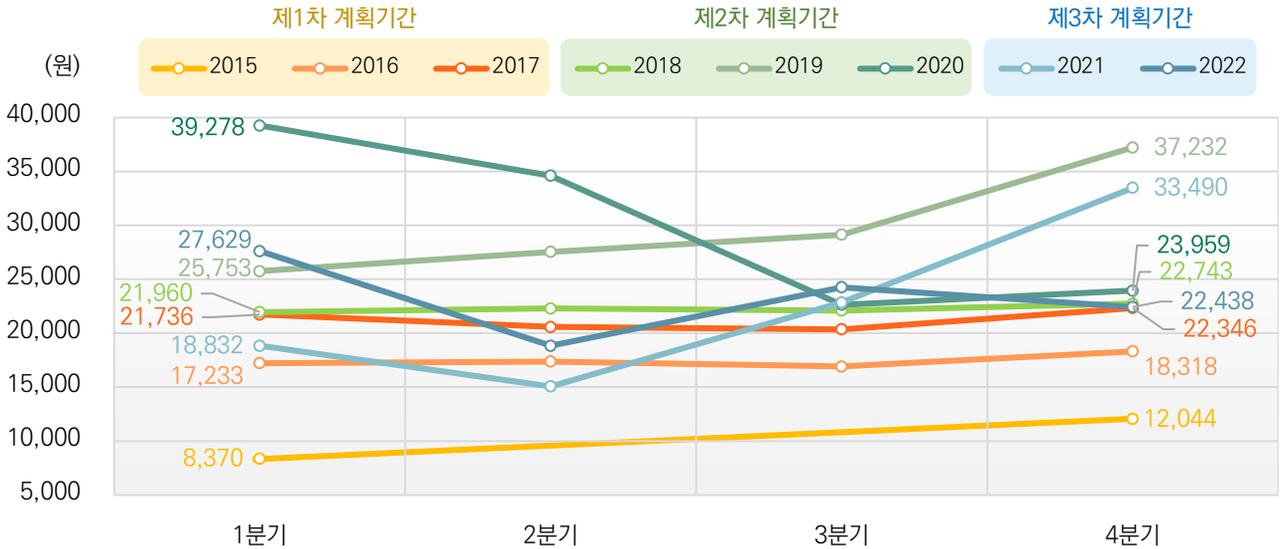
구분	월평균가(원)												연평균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8,370	-	-	-	-	-	-	-	-	12,000	-	12,100	12,028
2016	12,600	15,100	17,349	18,456	19,326	17,223	16,258	16,985	17,364	18,291	18,056	18,525	17,367
2017	20,751	24,254	21,440	20,507	20,522	20,702	20,350	20,276	20,437	21,512	23,184	21,930	21,131
2018	21,871	21,984	22,032	21,945	22,193	22,406	23,435	21,686	21,820	22,997	22,657	23,159	22,237
2019	24,428	26,393	26,450	27,876	27,508	27,553	28,192	29,215	30,835	33,093	36,548	40,171	29,126
2020	38,035	38,867	40,134	40,247	34,532	31,329	24,496	19,649	21,209	24,279	22,264	25,434	29,026
2021	18,980	19,028	18,613	16,338	17,453	13,873	19,502	23,284	29,097	30,310	32,746	34,609	19,709
2022	35,121	31,458	23,203	20,749	20,914	16,854	21,562	24,757	25,894	22,438	-	-	21,773



K-ETS in Focus

2022.10.01. ~ 10.31.

국내 배출권(KAU) 장내 평균가격 현황



구분	분기별 평균가(원)				연평균가 (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5	8,370	-	-	12,044	12,028
2016	17,233	17,371	16,916	18,318	17,367
2017	21,736	20,582	20,357	22,346	21,131
2018	21,960	22,300	22,111	22,743	22,237
2019	25,753	27,548	29,141	37,232	29,126
2020	39,278	34,618	22,642	23,959	29,026
2021	18,832	15,060	22,861	33,490	19,709
2022	27,629	18,843	24,266	22,438	21,773

주요 정보 사이트 ※ 사이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환경부 · 시장 전반 관리·감독	한국환경공단 · 배출권거래제 운영기관 · 배출권 할당, 배출량 평가, 인증 · 온실가스 감축 참여업체 지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지원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배출권 시세조회(일일거래, 경매) ·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리포트
배출권등록부시스템 · 배출권 제출 및 거래 시스템 · 업체의 배출권할당량, 총량, 보유량 등 확인 가능	상쇄등록부시스템 Offset Registry System · 외부사업 방법론, 외부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 등의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 명세서, 배출량 산정계획서, 할당신청서 등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보고서 제출 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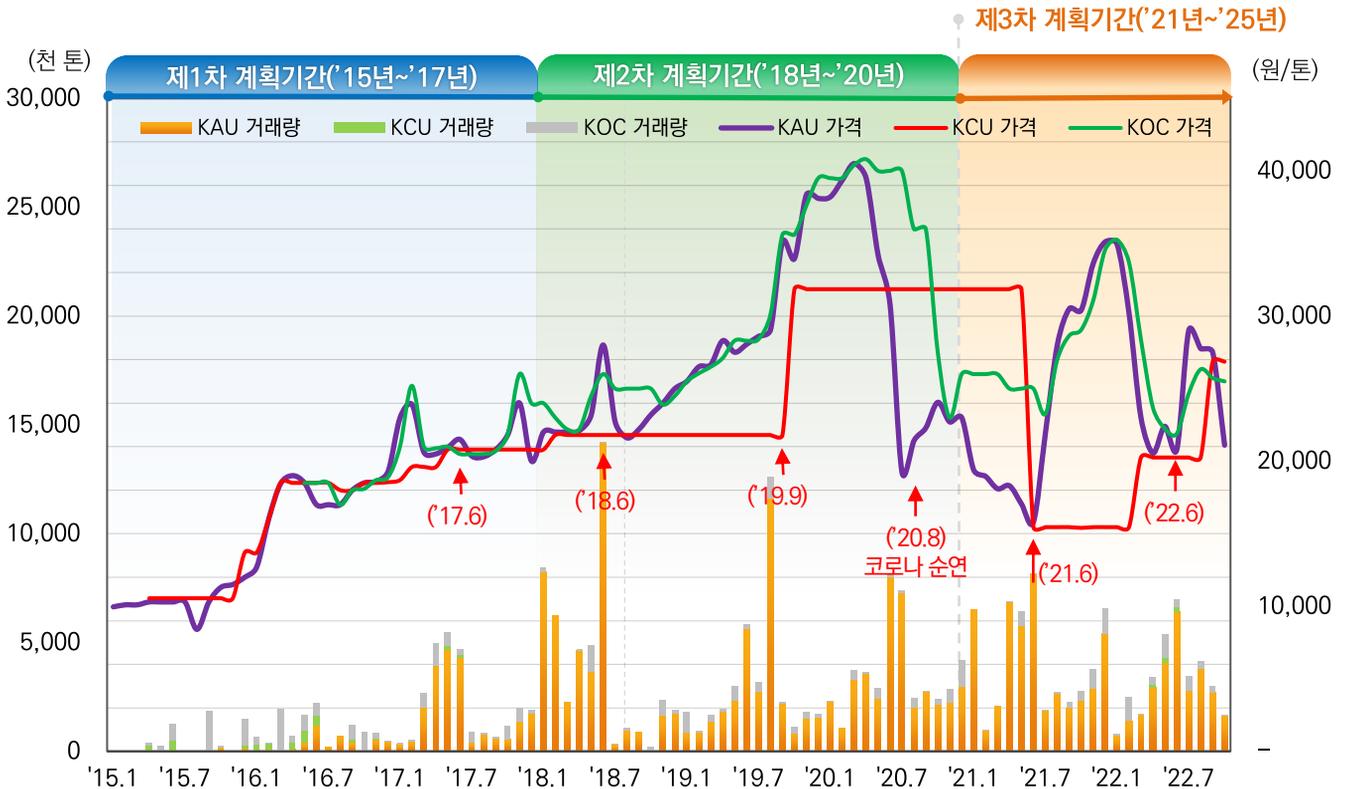


목차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국내 배출권(KAU, KCU, KOC) 누적 거래현황

DATA



- ※ 거래량: 장내·외 거래 기준
- ※ 국내 배출권 가격: 해당 배출권 월말 종가
- ※ KOC가격: KOC20-22종가, KOC21-23종가, KOC22-24종가의 산술평균 가격
- ※ 화살표(↑): 배출권 제출 시기

※단위: 거래량(천 톤), 거래대금(억 원), 평균가(원)

구분	최근 월 거래량			최근 분기별 거래량				최근 연거래량			누적	
	'22. 8월	'22. 9월	'22. 10월	'22.1분기	'22.2분기	'22.3분기	'22.4분기	'20년	'21년	'22년		
KAU	거래량	3,798	2,700	1,661	3,725	13,450	9,311	1,661	40,257	48,707	28,147	221,203
	거래대금	827	862	375	1,794	2,539	2,494	1,655	12,363	11,175	6,709	55,052
	평균가	24,757	25,894	22,438	27,629	18,843	24,266	22,438	29,026	19,709	21,773	-
KCU	거래량	105	-	-	-	585	105	-	-	-	690	4,114
	거래대금	28	-	-	-	120	28	-	-	-	148	688
KOC	거래량	326	425	22	1,162	2,387	1,404	22	3,756	6,009	4,974	36,712
	거래대금	66	114	-	262	440	224	-	1,021	1,597	926	260,267



목차로 돌아가기

Global ETS in Focus

※ 환율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2. 10. 31

해외배출권 거래 현황

제도 (System)	원 / 톤	전월비 (원/톤) / 등락률 (%)	
EU-ETS			
- EUA(현물)	112,615 (79.68 EUR) 2022.10.31	▲ 18,755	▲ 19.98
- EUA(선물)	113,025 (79.97 EUR) 2022.10.31	▲ 18,713	▲ 19.84
- EUA(경매)	111,216 (78.69 EUR) 2022.10.31	▲ 16,706	▲ 17.68
영국(선물)	127,809 (77.65 UKA) 2022.10.31	▲ 4,312	▲ 3.49
캘리포니아(경매)	38,321 (27.00 USD) 2022.08.17	▼ 5,464	▼ 12.48
RGGI(경매)	19,090 (13.45 USD) 2022.09.07	▼ 639	▼ 3.24
뉴질랜드(현물)	69,802 (84.75 NZD) 2022.10.31	▲ 4,736	▲ 7.28
중국 국가단위ETS	11,365 (58.00 CNY) 2022.10.31	▲ 98	▲ 0.87

해외
통계

※ 영국 : 브렉시트 이후 EU-ETS를 대체하기 위해 UK-ETS를 2021년부터 발효했으며, 적용부문은 에너지집약산업, 발전부문, 항공부문 등을 대상으로 함.

※ 캘리포니아 :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퀘벡 등 2개주의 발전, 산업, 연료공급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연 4회 경매 실시.

※ RGGI : 미국 북동부 11개 주의 25MW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총량거래방식 시장으로 100% 경매(유상할당)로 이루어짐.

※ 뉴질랜드 : 산림, 에너지, 수송, 산업공정, 농업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현물거래 정보 제공.

※ 중국 국가단위 : 2013~2019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6,000톤 이상인 전력부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무상할당으로 이루어짐.

환 율	
1EUR	1,413.34원
1UKA	1,645.96원
1USD	1,419.30원
1NZD	823.62원
1CNY	195.94원

해외 배출권 거래 현황 확인 사이트

- EU-ETS
현물 (일별), 경매: EEX
22 DEC 선물: ICE
- 영국 ETS
선물 (일별)
- 캘리포니아 ETS
현물 경매 (3개월 주기)
- RGGI
현물 경매 (3개월 주기)
- 뉴질랜드 ETS
현물 (일별)
- 중국 ETS
현물 (일별)



Global ETS in Focus

※ 환율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2. 10. 31



선물시장(EUA Futures DEC22) – ICE 거래소 기준

	9월	10월	
종가	66.73유로 (94,312원)	79.97유로 (113,025원)	▲ 18,713원
평균가	70.40유로 (99,495원)	70.49유로 (99,620원)	
최고가	80.79유로 (114,184원)	81.21유로 (114,777원)	
최저가	65.15유로 (92,079원)	65.94유로 (93,196원)	
총거래량	480,523천톤	403,272천톤	▼ 77,251천톤



현물시장(EEX EUA Spot) – EEX 거래소 기준

	9월	10월	
종가	66.41유로 (93,860원)	79.68유로 (112,615원)	▲ 18,755원
평균가	70.02유로 (98,965원)	70.24유로 (99,272원)	
최고가	80.32유로 (113,519원)	80.91유로 (114,353원)	
최저가	64.80유로 (91,584원)	65.58유로 (92,687원)	
총거래량	1,098,000톤	365,000톤	▼ 733,000톤



경매시장(EUA Primary Auction Spot) – EEX 거래소 기준

	9월	10월	
종가	66.87유로 (94,510원)	78.69유로 (111,216원)	▲ 16,706원
평균가	69.57유로 (98,320원)	69.52유로 (98,255원)	
최고가	78.41유로 (110,820원)	80.76유로 (114,141원)	
최저가	64.70유로 (91,443원)	64.45유로 (91,090원)	
총거래량	46,566,500톤	46,285,500톤	▼ 281,000톤

I EU-ETS 가격 상승

10월 유럽 배출권거래제 EUA ('22 DEC) 가격은 9월 종가 대비 19.84%(약 € 13.24, 18,713원) 상승하며 상승세를 보였고, EUA 선물거래량은 16.08% 감소하였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난방을 위한 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였다.



목차로 돌아가기

Global ETS in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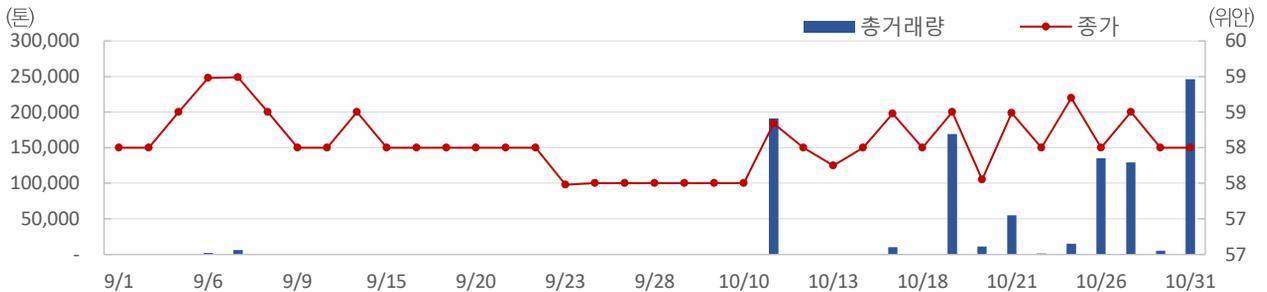
※ 환율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2. 10. 31

중국 국가단위 통합 탄소배출권

중국 국가단위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량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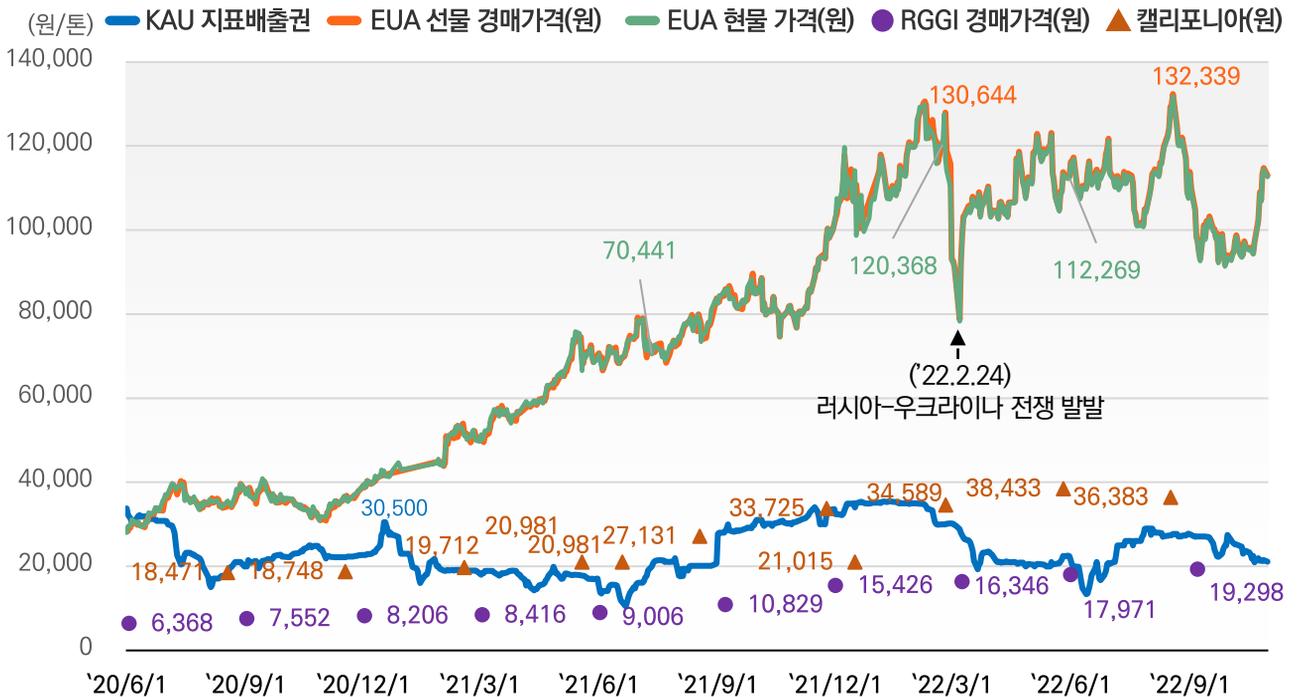
중국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10월 증가는 11,365원으로 9월 증가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당월 총 거래량은 969,746톤으로 전월 10,810톤 대비 약 89배 증가하였다.

	9월	10월	
증가	57.50CNY (11,267원)	58.00CNY (11,365원)	▲ 98원
평균가	58.02CNY (11,369원)	58.11CNY (11,387원)	
최고가	58.99CNY (11,559원)	58.70CNY (11,502원)	
최저가	57.48CNY (11,263원)	57.50CNY (11,267원)	
총거래량	10,810톤	969,746톤	▲ 958,936톤



국가별 배출권 가격 비교

DATA



해외 통계



국내 기후변화 동향

Issue *in* focus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 보고

환경부는 올해 10월 25일, '1990-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공개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 이후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2020년 배출량은 전년보다 6.4% 감소한 6억 5,622만 톤으로 최종 집계 되었다.

'19년 대비 '20년 감축량(감소율) · 증가량(증가율)

순위	배출량 감소	감축량 (백만톤)	감소율 (%)	순위	배출량 증가	증가량 (백만톤)	증가율 (%)
1	발전 · 열 생산	30.7	12.3	1	에너지 분야 화학산업	0.5	1.1
2	도로수송	4.2	4.3	2	농림어업 에너지 소비	0.4	11.1
3	기타제조업(비금속 등)	3.4	8.6	3	폐기물 소각	0.2	2.9

분야별
증감분석

전년대비 ▲에너지(6.8% 감소), ▲ 산업공정(7.0% 감소), ▲ 농업(0.4%증가), ▲ 폐기물(1.3%증가)로 집계되었다.

각 분야별 주요 배출량 감소 원인으로는 ①발전 · 열 생산분야의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량 감소, ②도로수송분야의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유류소비량 감소, ③기타제조업분야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소비량 감소, ④철강분야의 전로강 생산량 감소에 따른 유연탄 공급량 감소로 파악된다.

배출량 증가한 분야에서는 ①화학 에너지분야의 원료(LPG, LNG) 사용량 증가, ②농림어업 에너지분야의 경유 소비량 증가, ③폐기물 소각분야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처리량 증가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바로가기

참고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0)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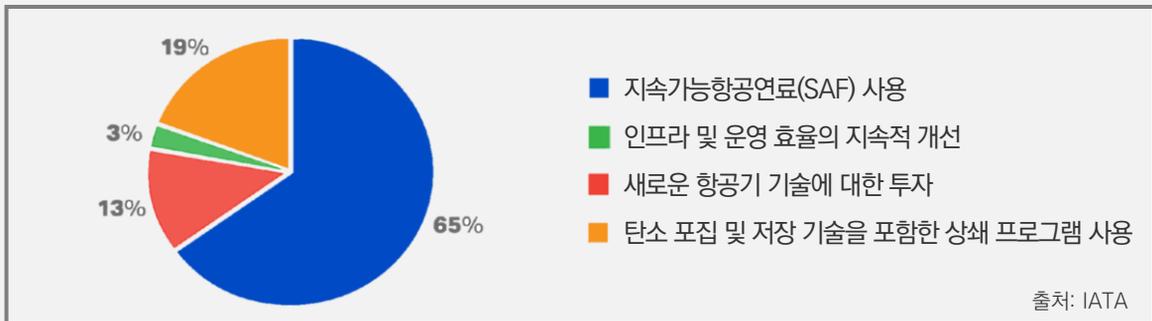


국내 기후변화 동향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¹⁾에 따라 내년부터 판매·사용되는 지속가능 항공연료(SAF)²⁾를 대상으로 갤런당 최대 1.75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발표하면서 SAF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SAF란 무엇이며, 이 외에 항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요소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도]



SAF의 도입

효율적인 최신 항공기 사용 외에 항공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화석 연료 대신 SAF(지속가능 항공연료)를 도입하는 것이다. SAF는 화석 자원이 아닌 폐식용유, 생활 폐기물, 산업부생가스 등 대체 원료로 생산된 항공 연료로써, 기존 항공 연료와 비교했을 때 CO₂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다. 훨씬 고가이지만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항공사에서는 SAF 개발과 공급량 확대를 위해 생산업체와 적극 협력하고 투자 중이다. 국내 최초로 SAF를 도입한 대한항공에서도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Royal Dutch Shell과 SAF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에는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 추진(2024년부터 예타 사업 추진), 바이오항공유 2026년 국내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 Inflation Reduction Act.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된 법안
- 2) Sustainable Aviation Fuel,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 자원이 아닌 폐식용유, 생활 폐기물 등 대체 원료로 생산된 항공 연료



국내 기후변화 동향

항공기 교체

항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또다른 방법은 항공기를 교체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려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보다 현대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항공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또한 연료 효율이 높은 신형 항공기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보유 항공기의 평균 기령³⁾이 국내 최저를 달성했다. 항공사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교체와 더불어 항공기 중량 절감, 연료 효율이 높은 운항을 위한 비행 노선 최적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꾀하고 있다.

탄소 상쇄

원천에서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면 업계는 탄소 포집 기술을 포함한 상쇄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나머지 배출을 완화할 수 있다. 탄소 상쇄 제도란 산림 보호 프로젝트, 농촌 탄소 배출 제어 프로그램,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방법이다. 직접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저장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⁴⁾는 발전 및 산업 공정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CO₂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로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항공사 온실가스 저감방법]

		AirCanada	Airfrance	American Airline	KLM	Lufthansa	Norwegian	United
저감 방법	항공기 교체 (연료효율 증대)	○	○	○	○	○	○	○
	탄소상쇄	-	○	○	○	○	○	-
	대기 중 탄소 제거	-	-	-	-	-	-	○
	SAF (지속가능 항공연료) 도입	○	○	○	○	○	○	○
	기타 감축수단	○	○	○	○	○	-	○

3) 항공기의 나이

4)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



목차로 돌아가기

국내 기후변화 동향

국내 기후 소식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환경부, 한-인도네시아 장관회의 개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성명 서명, 전기차 생태계-신수도 친환경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 공동 노력



새정부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3UP) 제시
제2기 민간위원 신규 위촉, 산업계 위원 확대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개편한다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년 추진상황 점검, 탄핵위 의결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에서 기후변화 체험해 보세요



생생채움 전시관 15주년 기념 체험형 전시 기획 마련



2022년 상반기 적자본 수소충전소에 연료비 지원



수소충전소 93곳에 평균 3,013만 원, 총 28억 원 지원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집트서 개막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감축-적응-재원 등 협력방안 도출 예정



방기선 제1차관, 탄소중립 달성 및 기업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논의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다부처 온실가스 관측 연구협약체 전국으로 확대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추진



국내 동향



해외 기후변화 동향

Issue *in* focus

‘이행을 위한 협력’,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 개막

UNFCCC >

환경부 >

ENB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가 11.6(일), 2주 간(~11.18(금))의 일정으로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되었다.

지난 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칙(Paris Rulebook)을 모두 채택함에 따라, 이번 COP27은 파리협정 1.5°C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더욱 강조될 예정이다. 6년 만에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이번 COP27의 의장국인 이집트 정부는 슬로건을 “이행을 위한 협력(Together for Implementation)”으로 정하고, “이행 총회(implementation COP)”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COP27 개요]

- (기간) 2022.11.6.(일)~11.18(금), 2주
- (장소)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
- (의장국) 이집트 / (의장) 사메 하산 쇼크리(Sameh Hassan Shoukry) 외교부 장관
- (개최 규모) 198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 언론 등 38천*여 명
 - * 사전 등록자 기준, 개최국 관계자 및 부대행사 참관단 제외
 - (우리 정부)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등 11개 관계부처 담당관 및 자문기관 전문가 등 70여명 파견
- (개최 회의) 제27차 협약 당사국총회, 제17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제4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제57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의회의, 제57차 이행부속기구의회의

개막식에서 사이먼 스티엘 UNFCCC 신임 사무총장은 “파리 총회(COP21)는 우리에게 협정문을 주었고, 카토비체(COP24) 및 글래스고(COP26) 총회는 우리에게 계획을 주었고, 샤름엘셰이크 총회(COP27)는 우리를 이행으로 전환시켜줄 것이다”라며, 그 어떤 국가도 “단순한 승객(mere passenger)”으로 무임승차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①이행으로의 대전환 입증, ②감축·적응·재원·손실과 피해 의제에서 내실있는 논의 진전, ③협상 과정에 있어 투명성 및 신뢰성 원칙 구현을 이번 COP27의 3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해외 기후변화 동향

한편, 11.7(월)~8(화) 이틀 간 COP27 고위급 세션 1부로 샤름엘셰이크 기후이행정상회의(The Sharm El-Sheikh Climate Implementation Summit)가 개최되어, 리시 수낙 영국 신임 총리 등 110여 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COP27의 슬로건을 강조하며, 각 국에 온실가스 감축 및 특히 아프리카 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 지원 방안을 우선시하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달성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후행동을 후퇴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모든 G20 국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미국-중국 주도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간 '기후연대합의(Climate Solidarity Pact)' 체결,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 부과, △향후 5년 내 조기경보시스템의 전지구적 보급 등을 촉구하였다.



우리 측 대표로는 나경원 기후환경특사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참석하여, 정상회의 말미에 주어진 특별세션을 통해 △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 △녹색 ODA 확대를 통한 개도국 기후행동 지원, △선진-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통한 건설적 기여, △해양의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새로운 장이 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영국은 적응기금 공여액 3배 확대, 독일은 기후재원 투입액 60억 유로로 확대 등을 약속하였고, 11일(금)에 COP27 총회장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수소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키갈리 개정문 비준, △기후 위기 및 탄력성 제고를 위해 작년 한 해 63백억 달러(약 830조 원) 지출, △적응기금 공여액 두 배 확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PREPARE¹⁾ 기금 2십억 달러(약 2조6천억 원) 마련 계획, △아프리카 지역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지원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①감축 작업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 ②글로벌 적응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 지속, ③손실과 피해에 관한 재원 기구 설립, ④신규 기후재원 목표 설정 등 100여 개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 ETS Insight 54호('22.12월)는 COP27 특집호로 꾸러질 예정입니다.

1)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daptation and Resilience



해외 기후변화 동향

국가결정기여(NDC), 파리협정 1.5°C 목표 달성에 충분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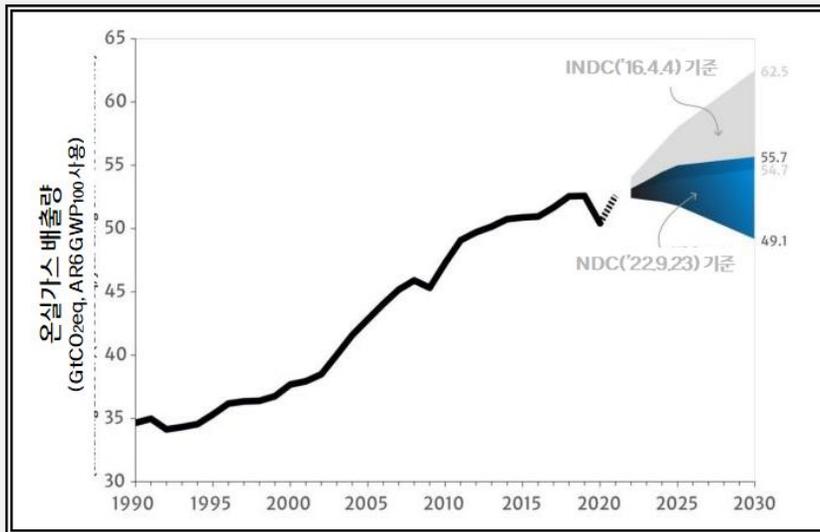
UNFCCC >



보고서 원문 보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COP27에 앞서 각국의 2030년 국가결정기여(NDC)에 대한 종합보고서²⁾를 발표하였다. 올해 9.23까지 제출된 193개국의 NDC를 종합한 결과 금세기말 지구평균온도는 2.5°C 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야심차고 즉각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 NDC 이행시 2030년 배출수준 전망



특히, 각국의 2030년 NDC가 완전히 이행된다고 해도 2025년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2.6% 증가한 518~550억 톤, 2030년에는 10.6% 증가한 491~557억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작업반 보고서상 1.5°C 목표 달성 시나리오³⁾와 무조건부 NDC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2030년 배출량 전망치 간에 230억 톤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사이먼 스티엘 UNFCCC 사무총장은 파리협정 1.5°C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국에 기후계획을 재검토하고 상향할 것을 촉구하였다.

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Synthesis report by the secretariat
3) 2019년 대비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43(34~60)% 감축 시나리오



해외 기후변화 동향

NDC 구성요소별 주요 통계

잔여 탄소예산⁴⁾ 지구평균온도 1.5°C 상승억제 가능한 탄소예산(5천억 톤, CO₂ 기준)의 86% (430기가톤)가 2020~2030년 동안 소진 전망

감축목표 유형 배출전망치 목표(BAU, 46%), 절대량 목표(37%), 기타배출집약도 및 정책·행동 목표 등(17%)

대상 부문 71~90%의 국가가 IPCC 2006 지침에 따른 모든 부문을 포함(economy-wide)하여 NDC 제출

대상 온실가스 CO₂(99%), CH₄(90%), N₂O(88%), HFCs(51%), PFCs(36%), SF₆(36%), NF₃(26%)를 대상 온실가스로 명시

이행 기간 92%의 당사국이 2030년 목표를 포함하여 제출(나머지 8%는 2025년, 2035년, 2040년, 2050년 등을 목표연도로 설정)

탄소시장 활용 76%(활용 계획 46%p, 가능성 30%p)가 협정 제6조에 규정된 최소 한 가지 종류의 자발적 협력 참여 의향 표명



보고서 원문 보기

한편, 같은 날 UNFCCC 사무국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T-LEDS)에 대한 종합보고서⁵⁾도 발표했다. 올해 9.23까지 제출된 62개국의 LT-LEDS를 종합한 결과, 제출된 LT-LEDS와 NDC상 장기목표를 제시한 국가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를 6% 감축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4) 파리협정 1.5°C 상승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할 수 있는 CO₂ 배출 총량

5) Long-term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Synthesis report by the secretariat



해외 기후변화 동향

LT-LEDS 주요 내용

장기 감축목표 모든 국가가 장기 감축목표를 제시, 94%의 국가가 수량적 장기감축목표를, 6%의 국가가 정책 및 조치를 제시하였고, 정량적 장기감축목표를 제시한 국가 중 87%가 205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2030년 배출전망 제출된 LT-LEDS 및 NDC상 장기목표 모두 이행 시, 2030년 배출량은 349~384억 톤으로 2019년 배출량보다 2~11% 감축 수준

2050년 배출전망 제출된 LT-LEDS 및 NDC상 장기목표 모두 이행 시, 2050년 배출량은 123~161억 톤 2019년 배출량보다 59~69% 감축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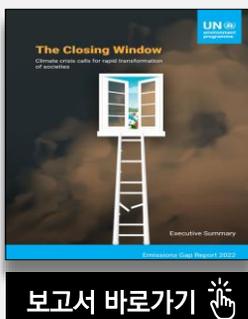
감축률 전망 2020년부터 LT-LEDS 및 NDC상 장기목표 제출국이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을 개시하고 30년 동안 유지한다고 가정 시, 2030~2050년 연평균 감축률은 2019년 배출량 기준 연간 2.1% 감축 전망

정의로운 전환 57%의 국가가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공약 제시, 43%의 미언급 국가 중 23%p도 관련 요소인 공정성, 형평성, 포괄성 등 명시

순환경제 81%의 국가가 순환경제를 장기저탄소발전의 목표 또는 지침으로 언급, 90% 이상의 국가가 순환경제 개념을 언급

파리협정 1.5°C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30억톤 더 줄여야...

UNE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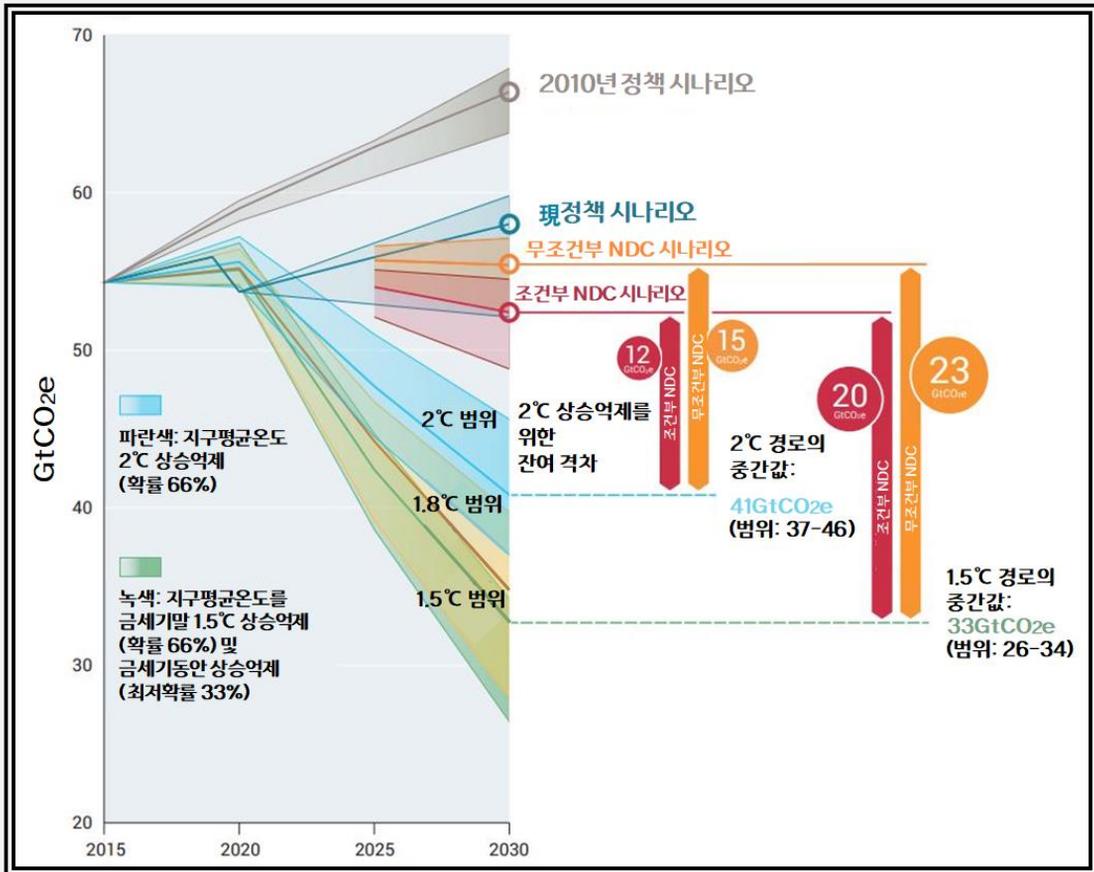


보고서 바로가기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UNFCCC 당사국총회 개막에 맞춰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UNEP은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 1.5°C 및 2°C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량과 각국이 제출한 2030 NDC 목표 수준사이의 “배출 격차(emissions gap)”를 분석·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해외 기후변화 동향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수준이 유지될 경우 2030년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580억톤CO_{2e}로 전망된다. 이는 각 국가 제출한 2030년 NDC 목표수준 대비 30~60억톤의 이행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제출된 2030년 NDC 목표는 협정 1.5°C 목표 경로 대비 200~230억톤, 2°C 대비 120~150억톤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UNEP은 전 세계가 COP26(‘21.11, 영국 글래스고)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통해 2030년 목표를 재검토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COP26 이후 제출된 NDC는 2030년 배출량을 기존 대비 1%(5억톤)만을 추가 감축하는 수준으로, 통탄할 정도(woefully inadequate)라고 평가하였다. 이 추가적 5억톤 감축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호주, 인도네시아의 상향 NDC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아쉽게도 다수의 G20 국가가 2020년 이후 NDC를 상향·갱신 제출했으나, 추가적 정책 수단 없이는 2030년 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기후변화 동향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두 배 확대 필요

[United Nations >](#)
[UNFCCC >](#)

[보고서 바로가기](#)

지난 10월 11일, 세계기상기구(WMO)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공급을 두 배 증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서비스 현황(State of Climate Services)'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발전과 같은 청정한 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2050년까지 에너지 부문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배출원으로부터의

총 에너지 공급량이 현재의 약 25%에서 50%(최대 65%)로 두 배 가량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7.1TW 규모의 청정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Reuters >](#)
[The Japantimes >](#)
[S&P Global >](#)
[CNBC >](#)


시 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0년에 두 번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10.16~22)' 개막 연설에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보호와 녹색 생활방식을 장려하며, 자연보존은 현대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 주석은 지난 10년 동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으며, △녹색전환 가속화, △포괄적인 자연보존 전략 시행, △녹색 및 저탄소 산업 및 생활방식 장려,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 △깨끗하고 효율적인 석탄 이용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외 기후변화 동향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 에너지 전망 발표

IEA >

Carbon Brief >



보고서 바로가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파리협정 1.5°C 목표 및 2050년까지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 및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미래 전망이 포함된 '세계 에너지 전망 2022(WEO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IEA는 화석연료 사용이 5년 안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각국이 기후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석탄·석유·가스 사용량은 정점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고: WEO2021 3대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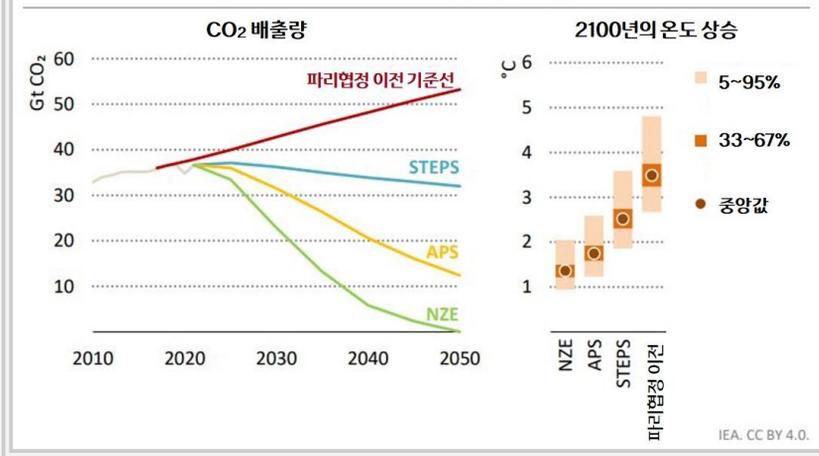
- ① 2050 넷제로 시나리오(Net Zero Emissions by 2050, NZE)
 - 2050년까지 에너지부문의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위한 경로
- ② 발표된 기후목표 시나리오(Announced Pledges Scenario, APS)
 - 세계 각국의 국가결정기여(NDC) 및 장기 탄소중립 목표 등 모든 기후관련 공약이 적시에 완전히 이행된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
- ③ 현행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TEPS)
 - 세계 각국이 현재 시행 중인 특정 정책을 부문별로 평가한 시나리오

에너지 부문 CO₂ 배출량은 2021년 366억톤으로 확인, 연간 배출량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50년까지 320억톤 수준으로 서서히 감소하여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가 2.5°C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파리협정 이전의 기준 경로에서의 전망치보다 1도 가량 낮아진 것으로, 일부 진전이 있음을 의미하나 협정 목표 달성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APS 시나리오에서 CO₂ 배출량은 2020년대 중반에 정점에 도달하고, 2050년에 120억톤까지 감소하며, 2100년 지구평균온도는 1.7°C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NZE 시나리오에서 배출량은 2030년 230억톤, 2050년 0톤으로 감축되어야 하고, 이는 2100년 지구온도 상승을 협정 목표인 1.5°C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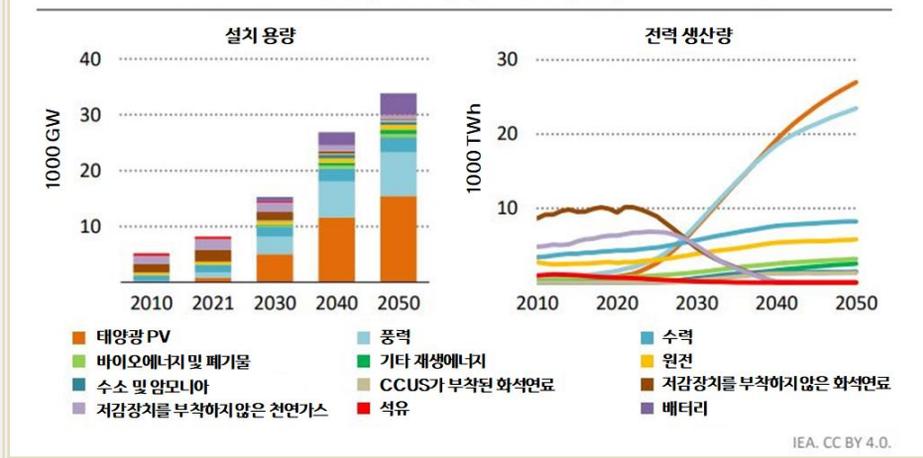
해외 기후변화 동향

시나리오 별 에너지 관련 및 공정 CO₂ 배출량(2010-2050) 및 2100년의 온도 상승



IEA는 향후 10년 간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가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충당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용량이 각각 18%,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기준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 전망치는 6,163GW였으나, 이번 보고서 기준으로는 7,464GW로 전망되어 파리협정 이전 정책에 따른 예상 분석치인 1,405GW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ZE시나리오에서 부문별 총 설치 용량 및 전력 생산량(2010~2050년)



한편, IEA는 세계 에너지 위기가 식량 문제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및 경기 후퇴 위험을 촉발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7,500만 여명의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동 보고서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해외 기후변화 동향

GCF 이사회, 재원보충 합의 및 3.8억 달러 규모의 사업 승인

GCF >

기획재정부 >



제3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10.15~20, 6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이사회는 9건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5.5억 달러(약 7,920억 원) 지원을 승인했고, 2023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 및 승인했다.

사업 승인

산업은행이 제안한 사업이 최종 승인되어, 최초로 국내 GCF 인증기구⁶⁾가 주도하여 추진한 사업⁷⁾이 GCF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승인 결정으로 총 사업 규모는 약 2.5억 달러(GCF 자금 1.05억 달러+인도네시아 현지금융기관 1.3억 달러)로 예상된다. 금번 승인은 ①국내 기업·기관의 개도국 기후 사업 참여, ②GCF 보증의 효율적 활용, ③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이 외에도, 프랑스개발청(AFD),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등이 제안한 8건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이 승인되어, 총 35개 개도국에 GCF 자금 5.5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GCF 업무계획 승인

아울러, 이사회는 2022년 GCF의 업무성과와 이행내역을 점검하고, 운용 우선순위, 신규 사업 및 인증기구 승인 목표 등 2023년 GCF 사무국과 독립기구의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2023년 GCF는 △개도국 GCF 인증기구의 사업 참여 촉진, △민간 부문 전략 활용,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 지원 확대, △GCF 자금 접근성 강화를 우선순위 목표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차기 GCF 이사회는 '23.3.13~16에 개최될 예정이다.

6) GCF는 이사회 승인 받은 인증기구를 통해 사업 수행 및 관리, '22.10월 기준 GCF 인증기구는 총 113개이며, 그 중 국내 인증기구는 산업은행·KOICA 2개
7)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산업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해외 기후변화 동향

[참고: GCF 제34차 이사회 승인 사업 현황]

국가	사업명	인증기구	분류	GCF 요청액 (백만 달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산업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 프로그램	KDB산업은행	감축 민간	105.0 (보증, 무상공여)
바누아투	바누아투 물안보 강화를 통한 적응 및 복원력 향상	태평양공동체 (SPC)	적응 공공	23.3 (무상공여)
바베이도스	바베이도스 폐수 처리 시스템의 기후 복원력 향상	카리브해공동체 기후변화센터 (CCCCC)	교차 공공	39.4 (무상공여)
페루	페루 아마존 지역 산림 비즈니스 지원 사업	페루환경보호기금 (Profonanpe)	감축 공공	9.0 (무상공여)
알바니아 등 11개국	건물 냉각 장치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사업	프랑스개발청 (AFD)	교차 공공	220.5 (선순위대출, 무상공여)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E-모빌리티 등 저탄소 교통수단 친화적 환경 조성	중남미개발은행 (CAF)	감축 공공	76.6 (차관, 무상공여)
가봉 등 8개국	녹색 채권에 대한 보증 기관 설립 지원	미쓰비시UFG은행 (MUFGBank)	교차 민간	40.5 (지분투자)
베냉 등 13개국	라틴아메리카·서아프리카 기후 벤처 금융 지원	독일국제협력공사 (GIZ)	감축 민간	26.9 (무상공여)
기니비시우	기니비사우 북서 해안 지역 농업 생산 시스템 적응 지원	사하라-사헬 관측소 (OSS)	적응 공공	9.8 (무상공여)
지원요청 총액(백만 달러)				551.0

구독자 QUIZ!

| 지난 호 정답 | 기후변화영향평가

| 지난 호 퀴즈 정답자 선물 발송 | 2022.11.14

| 이번 호 이벤트 마감 | 2022.12.16

화석 자원이 아닌 대체 원료로 생산된 항공 연료로써,

기존 항공 연료와 비교했을 때 CO₂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연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찾으러가기 >

정보지 활용조사

정보지 공유, 인용사례 등 활용실적을 보내주시면 "커피&디저트 기프트콘" 증정!

<예시> 기관 공유 사례 증빙 캡처

구분	제목	수량	등록일
기후변화	ETS INSIGHT의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 2022.10호 판	1	2022.11.23
ETS INSIGHT	ETS INSIGHT의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 2022.10호 판	1	2022.10.28

이메일

etsinsight@keco.or.kr
(기프트콘 받으실 휴대폰 번호 기재 후 송부)

※ 정보지 만족도조사, 정보지 활용도 조사는 구독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작성하신개인정보는 구독신청이나, 상품제공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지 설문조사

새로워진 정보지 설문조사 참여하고
정보지 월간 퀴즈 응모 시
정답자 중 30분께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트콘" 증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ETS INSIGHT 는

보다 실속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정보지 설문조사 바로가기

※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본 조사 목적 외 다른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보지 모바일 채널

Ch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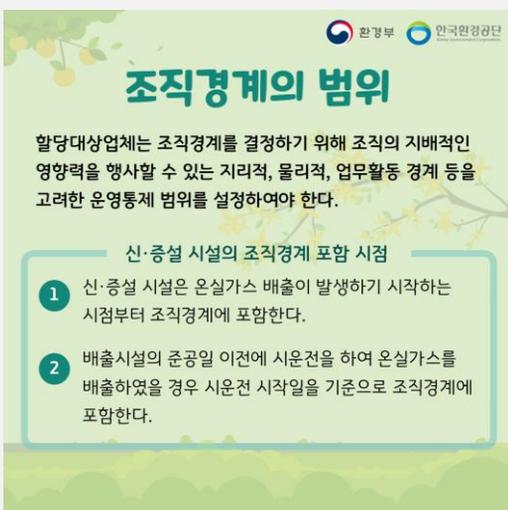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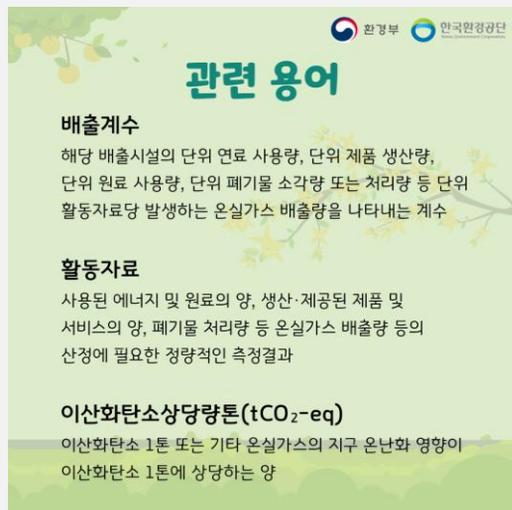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정보지 안내사항

본 정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저작권이 있으며,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공공저작물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본 정보지의 상업적 이용 혹은 저작물 변경,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소유하지 않은 저작물 (전문가 기고, 인터뷰 등)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문자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 카카오톡 모바일 채널을 통해 지난 '입문자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2022년도 배출권(KAU22) 이월차입 및 제출 안내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

- ▶ **이월 · 차입 신청기간** 배출권 인증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23년 6월 초)
- ▶ **이월한도** '22년도 배출권(KAU22)과 상쇄배출권(KCU22)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2배
※ 이월신청일 전날까지의 거래량으로 순매도량 산정

(예시) 6월6일까지의 순매도량이 100톤인 업체가 6월7일에 500톤을 매도한 후, 오후에 이월 신청을 한 경우

※ 6월6일까지 순매도량 100톤의 2배인 **200톤까지만 이월 가능**

- ▶ **차입한도** 해당 업체가 배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에 {①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 한도 - (②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0.5)}를 곱한 값 이내

(예시) A업체가 '21년도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인증량)의 8%를 차입한 경우

- ①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 한도 → '21년도 차입 한도인 **15%**
- ②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업체가 전년도에 차입한 비율인 **8%**

$$\text{'22년도 배출권 차입 가능수량} = \text{'22년도 배출권 제출수량(인증량)} \times \text{'21년도 차입한도 15\%} - \text{'21년도 실제 차입량 비율 8\%} \times 0.5$$

※ A업체는 '22년도 배출권 제출수량(인증량)의 **11%**{0.15-(0.08×0.5)}까지 차입가능

배출권의 제출

- ▶ **제출신고 기한** '23년 6월 30일까지(이의신청 업체는 이의신청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 **제출 가능한 배출권** KAU22, KCU22, i-KCU22
- ▶ **상쇄배출권(KCU) 제출한도** '22년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인증량)의 5%까지
- ▶ **배출권 소멸** 제출기한까지 처리(제출, 매도 등)하지 않은 배출권은 소멸

배출권의 거래

현재 모든 배출권 종목(KAU22~KAU25, KCU22, i-KCU22 등)의 거래가 가능하며, KAU22는 배출권 제출기한인 '23년 6월 30일까지 거래가 가능함. 다만, 이의신청을 한 업체는 이의신청 업체의 제출기한(이의신청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까지 KAU22의 거래가 가능함

※ KAU21은 거래 종료

배출권의 이월 · 차입 및 제출신고 방법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으로 배출권 제출신고 및 이월 · 차입 신청서 제출

자세히 알아보기

2022년도 배출권거래제 길라잡이 바로가기



ETS INSIGHT

Emissions Trading Scheme &
Carbon Market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본 정보지 관련 건의사항 및 의견 또는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시장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etsinsight@keco.or.kr
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부 climate4all@keco.or.kr(해외 기후변화 동향)